

《자유연제 IV 10:50~11:40》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

문은선 · 이근배 · 이영근 · 심상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목적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강선이나 나사못을 이용한 경피적 고정술,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 방법, 인공 관절 치환술 및 외고정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서의 일치된 의견은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던 37례를 골절형태, 고정물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 치료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3년 4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내원하였던 상완골 근위부 골절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52 예에서 술 후 7개월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하였던 37 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22례, 여자가 15례였으며, 평균나이는 45.6세(14~78)였고 추시기간은 평균 18.2개월(7~64)이었다. 골절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24례(64.8%)로 가장 많았으며, 동반손상으로는 하지골절이 11례(29.7%)로 가장 많았다. 골절의 분류는 이분 골절이 18례(48%)로 가장 많았으며, 삼분 골절 15례(40.5%), 사분 골절이 3례(8.1%)였으며, 골두분열 골절이 1례(2.7%)였다. 수술시까지는 U형 석고부목 또는 붕대고정 등으로 유지하였고, 25례(67.5%)에서는 관혈적 정복후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하였고, 5례에서는 도수정복 후 Steinmann 핀, K-강선 또는 나사못을 이용하여 경피적으로 삽입하였고, 3례에서는 외고정 기기를 이용하였으며, 3례에서는 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고정이 1례였다.

치료결과의 판정은 Neer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결과

치료결과는 Neer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경우가 15례(40.5%), 만족스러운 경우가 12례(32.4%),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4례(10.8%), 실패가 6례(16.2%)로 만족 이상의 결과는 72.9%였다. 골절형태에 따른 치료결과는 만족 이상의 결과가 이분 골절에서는 18례 중 15례(83%), 삼분 골절에서는 15례 중 10례(67%), 사분 골절에서는 3례 중 1례(33%)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고정물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 치료결과는 만족 이상의 결과가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한 경우는 25례중 19례(76%)였으며, Steinmann 핀이나 K-강선 및 나사못을 이용한 경우는 3례(60%)였다. 심한 골절-탈구 및 골 두 분리 골절이 있었던 3례에서 시행한 상완골 두 치환술은 1례에서 만족스러웠으나 2례에서는 심한 관절 강직 등의 소견을 보여 불만족스러웠다. 합병증으로는 관절 강직이 8례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 유합이 4례, K-강선의 이동이 1례였으며 불유합이나 상완골두의 무혈성괴사는 없었다.

결론

상완골 근위부의 이분 및 삼분 골절은 금속판을 이용한 안정적 정복 및 견고한 고정으로 견관절에 대한 조기 관절 운동을 시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분골절의 경우 상완골 두 치환술등 치료방법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